

사회

# 강력범 활개 시민들은 불안하다

## 광주경찰 '소탕 100일' 특별단속에도 성폭행 등 잇따라

### 민생 치안·순찰활동 부재 우려 목소리도

광주경찰이 지난달 25일부터 '절도·강도·성폭력 소탕 100일' 특별 단속에 나섰지만 되레 성폭행·강도 등 강력사건이 잇따라 주민들의 치안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용의자 검거를 위한 수사로 제자리 걸음이어서 치안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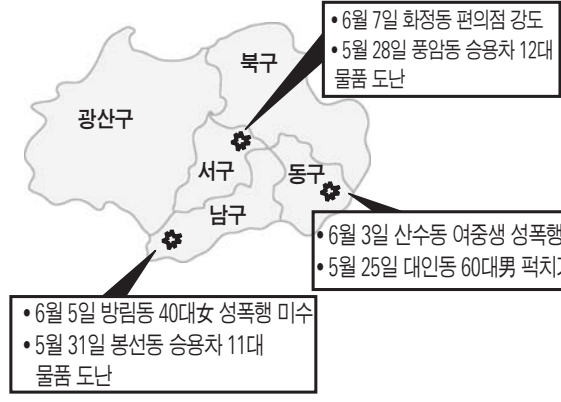
7일 새벽 2시4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해 업주 장모(41)씨를 위협, 현금 18만5000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지난 5일 새벽 4시께에는 광주시 남구 방림동 A(여·43)씨의 집에 30대 대로 보이는 복면을 쓴 괴한이 침입해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쳐자 달아났다. 또 지난 3일 새벽 3시께에는 동구 산수동에 사는 B(65)씨의 집에 누군가 침입, B씨의 손녀(15·중 2년)를

성폭행한 뒤 도망갔다. 지난달 31일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는 남구 봉선동 M아파트 주차장 등에 주차된 승용차 10여대가 털렸으며, 3일 전에는 서구 풍암지구 H아파트에 주차된 승용차 12대가 털렸다. 지난달 25일 밤 11시10분께에는 동구 대인동 P여인숙 앞 도로에서 취객 김모(68)씨가 락치기를 당하는 등 강력범죄 소탕작전 선포 이후 광주지역에서 각종 사건이 잇따랐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 화면분석과 동종 전과자 탐문 수사, 목격자 확보 등을 통해 범인 검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발생한 굵직한 강력사건 수사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민생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

다. 특히 경찰의 수사력과 순찰 활동 부재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주인 박모(여·43·동구 산수동)씨는 "딸 아이가 중학생인데, 집에 홀로 남겨두고 외출하기가 겁이난다. 아간의출은 물론이고 낮에도 다니기가 무섭다"며 "경찰에서 강력범죄 소탕한다고 언론에서 홍보하고 난리인데, 범인 검거는 뒷전이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경찰 인력을 범죄 취약 지역에 집중 증강 배치하는 한편, 범죄 다발지역에는 순찰활동을 대거 강화할 방침"이라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

### ■ 광주 강력범 소탕령 후 발생 현황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4일 광주경찰청사 빛고를 흙에서 지방청 간부와 각 경찰서 형사과장·지구대장 등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강도·성폭력 소탕 100일' 특별 단속' 선포식을 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7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역 활어취급 음식점의 수족관 청결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북구청은 오는 30일까지 지역 음식점 130여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돈 빼먹은 가짜 장애인

## 브로커와 짜고 타인 명의 진단서 등록

### 목포경찰, 2명 검거

말짚한 사람을 장애인으로 등록시켜주고 대가를 받은 브로커와 허위로 장애인 등록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목포경찰은 7일 장애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명의로 장애인진단서를 발급 받도록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챙긴 브로커 김모(40)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인 아니면서도 장애인등록을 한 뒤, 각종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 혜택을 받은 이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3월 초께 장애인 A씨를 앞세워 목포의 한 병원에서 이씨 명의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대가로 이씨로부터 현금 3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로부터 장애인진단서를 건네 받은 이씨는 허위진단서로 장애인등록을 한 뒤 LPG차량 운행, 철도요금 감면, 지하철 무임승차 등 각종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허위 장애인 발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달아났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지난 4일 붙잡혔다. 경찰은 허위 진단서 발급을 통한 장애인등록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병원과 관공서 관련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나원침 (8331) 김중두



# 화순 야산서 산삼 120뿌리

## 시가 1억원 달해

화순의 한 야산에서 40대들이 산삼 120뿌리를 발견해 화제다. 7일 난원 운영자 서모(41)씨에 따르면 최근 조모(42)씨 소유의 화순군 소재 임야에서 산삼양 재배지로 적합한지를 확인하려고 조씨와 함께 현지답사를 벌이던 중 산삼 근락지를 발견했다. 이들은 야생 산삼 근락지에서 산삼 120뿌리를 캐 한국산삼감정협회(회장 김기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35~40년생 추정 27뿌리, 10~30년생 추정 90여뿌리이며 협회는 이들 산삼의 시가를 1억원으로 추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산삼은 색상이 황금색이고 뿌리 상태가 양호한 야생 산삼으로 추정되며 호남지역의 산지 특성상 크게 자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들은 자연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나눔을 실천하고자 감



화순의 한 야산에서 발견한 120뿌리의 산삼 가운데 육선경씨에 내놓은 7뿌리

정밭은 산삼 가운데 7뿌리(시가 500여만원)를 육선 1000원 경매에 내놓았으며, 오는 9일 오후 8시 마감되는 판매금에서 수수료 8%를 뺀 나머지 전액을 희귀병 환자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 2t 밍크고래 유통 운반책 2명 붙잡아

## 군산해양경찰

서해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해 시장에 유통하려 한 일당이 해경에 달미를 잡혔다. 군산해양경찰은 7일 "이날 새벽에 군산시 해망동 도선장 인근 부두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를 운반하려는 박모(43·군산시)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전날 군산시 옥도면 흑도 인근에서 접촉한 포경선에서 2t 무게의 밍크고래를 넘겨받아 자신의 어선(7.9t)으로 육지로 운반하려다 야간 순찰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밍크고래를 육지로 운반해주면 3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밍크고래는 시세로 2000~300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취재본부=박근석기자 nogusu@

# 기사에 흥기 휘두르고 최루가스 뿌린 택시 강도범 잇단 검거

## 광주 광산·서부경찰

택시 기사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7일 택시 기사에게 최루가스를 뿌려 돈을 빼앗은 김모(38)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30일 새벽 2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한 식당 앞에서 박모(62)씨의 개인택시에 탑승, 최루 가스를 박

씨의 눈에 뿌린 뒤 현금 2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호신용 최루 가스를 박씨의 눈에 뿌려 앞을 보지 못하게 한 뒤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서부경찰도 이날 교통사고를 빌미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뜯어간 서모(44)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장모(3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그림값 50억 달러'

## 홍송원, 홍라희씨에 소송

서미갤러리 홍송원(58) 대표가 7일 '그림값을 지급하라'며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 홍라희 여사와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50억원의 물품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홍씨는 소장에서 "2009년 8월~2010년 2월 등 2명용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았다"며 이 중 50여원을 우선 청구했다. 서씨가 제출한 판매 내역에는 미국 작가 빌립 데 쿨의 'Untitled VI' (1975년작·작품가 313억원)과 영국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Man Carrying a Child' (1956년작·216억원), 현대미술 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Bull's Head' (64억5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홍송원씨는 오리온그룹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고급빌라 '마크힐스'를 짓는 과정에서 조성한 비자금 40억6000만원을 입금받아 미술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해 범죄수익을 숨겨준 혐의 등으로 지난 달 구속 기소된 상태다. /연남뉴스

# 직업전문학교 전 대표

## 1억원 공금 횡령 구속

광주동부경찰은 7일 공금 1억원여를 횡령한 광주 모 직업전문학교 전 대표이사 곽모(49)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2009년 9월10일 자신이 관리하는 공금 중 300만원을 경리직원을 시켜 자기 명의의 통장에 이체하는 등 지난 2008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모두 39차례에 걸쳐 1억3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곽씨는 동양자 3명과 함께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던 중, 공금을 빼돌려 신용카드 결제와 개인보험금을 내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양수현기자 yang@

# 마트서 물건 '슬쩍'

## 10대 소녀 4명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7일 대형마트에 물러가 식품과 물건을 훔친 박모(16)양 등 10대 소녀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양 등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광주시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과자와 초콜릿, 휴대용 게임기 등 총 15개 물품(3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결산가장에서 자랐거나 미혼모인 이들은 집을 나와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식료품 등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나 건달인데" 공짜 술 마신 조폭들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조폭력배라는 사실을 내세워 술값을 내지 않고 나온 30대 조폭이 경찰서행. ○...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모 조폭력배인 행동대원 오모(34)씨는 지난 4월 11일 새벽 1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정모(여·27)씨의 주점에서 1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먹고, 돈을 내지않았다는 것. ○...만취한 오씨는 "술값을 지불해 달라"고 정씨가 요구하자, 유리컵을 벽에 던지고, "내가 x과 건달인데 깨물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며 행패를 부렸는데, 폭력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 기여편이하인 모인보구권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7월 1일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편입수학(미,적분과정/선형대수)

전남대 편입 Hot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Teps 대개강 (Teps + 면접대비)